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영어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인식태도 분석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康賢珠

2007年 8月

영어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인식태도 분석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梁 彰 容

康 賢 珠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5月

康賢珠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국문초록>

영어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인식태도 분석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康賢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彰 容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며 언어교육 역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언어의 형식적 구조 및 언어 외적인 요소(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문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담화, 사회 언어적 지식,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언어의 사용법과 문형암기만을 강조했던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영어교육의 결과는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은 상당히 갖춰졌지만, 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영어교육의 흐름은 언어의 기능 및 실질적 사용과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현재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언어연구의 흐름 또한 실질적 언어 사용(performance-based)에 근거를 둔 언어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담화기능어로서 부가 표시어(tag markers)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어체 자료에서 관찰되는 부가표시어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화자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데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부가사의 형태로 쓰이는 right, okay 등은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 전달에 실질적 관련은 없지만 대화자들 간에 필수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담화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교육상의 영어교육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에서는 부가의문문에 대해 통사론적, 음운론적, 의미적 측면에서의 다소 기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졌고 실제 부가의문문이 영어사용권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부가의문문은 단순한 구조적(음운적, 통사적) 분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담화 속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영어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가의문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고등학교 교재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부가의문문의 쓰임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고 그 기대효과는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어 문법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첫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부가의문문의 담화상 다양한 기능이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현장에 있는 영어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부가의문문에 대한 인식과 실제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그 위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부가의문문은 구어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 증진이라는 목표에의 부합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교과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대화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제 대화와 유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세 권의 영어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가의문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부가의문문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실여부를 묻는 의문의 기능과 동의요구의 기능만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방식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활동에서 듣고 이해만 하는 수준에서 소개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접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및 학습자들이 부가의문문에 보이는 반응을 살펴 그 이해정도를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의문문의 정의, 부가의문문의 통사론적, 음운론적, 의미적, 담화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부가의문문이 의

사소통에서 활용되는 항목으로서 교수-학습 대상이 되는지의 실태를 설문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 영어교사들이 부가의문문을 전반적으로 담화상황과 유리된 성격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영역이 주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하는 문장의 형태는 주로 be 동사와 일반동사가 있는 축약된 의문문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령문 뒤에 오는 동일극 부가의문문과 담화적 부가사가 있는 문장은 부가표시어로서의 인식률이 낮았다. 또한 부가의문문이 타 의문문에 비해 공손한가의 여부를 물었을 때 학생, 교사 모두 그것을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소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 영어교사는 부가의문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어민의 경우는 끝에 담화적 부가사를 붙이는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어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과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여 한국인 영어교사가 부가의문문의 의미와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확실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교실 현장에서 부가의문문을 가르치는 방식은 부가의문문을 제시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활동에서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의 부가의문문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즉, 부가의문문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부가의문문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기대효과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하고 미묘한 어감까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목 차

국문초록	i
표 목 차	v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능력	4
1.1 언어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4
1.2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	5
2. 상호작용 문법	8
3. 선행연구 검토	10
3.1 통사적 접근	12
3.2 음운적 접근	15
3.3 의미적 접근	18
4.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	20
III. 영어교과서 부가의문문 사용실태 분석	
1. 교과서 분석 절차 및 방법	24
2. 교과서 분석 내용	25
2.1 문장의 형태	25
2.2 동사의 시제 및 기능	27
2.3 부가의문문의 유형	28
2.4 대답의 양상	29
3. 교과서 분석 내용 평가	30
IV. 영어 부가의문문의 인식 분석	32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방법	32

2. 설문 분석 내용	32
2.1 교사 대상 설문지 분석	39
2.2 학생 대상 설문지 분석	47
2.3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분석	53
2.4 분석에 따른 토의	61
3. 종합평가	63
3.1 영어교사	63
3.2 학생	64
3.3 원어민 보조교사	64
V. 영어 부가의문문 교수·학습 방향	
1. 교과서 내용 편성	65
2. 부가의문문 지도 방향	66
VI. 결론	68
참 고 문 헌	70
ABSTRACT	72
<부록1>	75
<부록2>	77
<부록3>	79

표 목 차

<표1> 부가의문문의 기능	23
<표2> 주절의 형태별 분포	25
<표3> 동사에 따른 분포	27
<표4> 구조적 부가의문문	28
<표5>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1분석	39
<표6>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39
<표7>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40
<표8>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5분석	41
<표9>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6분석	42
<표10>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7분석	43
<표11>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교사집단의 응답	44
<표12>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양상 (교사대상)	45
<표13>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1분석	47
<표14>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48
<표15>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3분석	49
<표16>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50
<표17>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응답	50
<표18>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양상 (학생대상)	51
<표19>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1분석	53
<표20>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54
<표21>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3분석	55
<표22>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58
<표23>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5분석	59
<표24>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6분석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언어내적 형식에 관한 것으로 실제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근래 언어연구는 실질적 언어 사용(performance-based)에 근거를 둔 언어 기능에 대한 것으로 그 흐름이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언어 행위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보장하며 상호 작용 기재(interactional cues)로 작용하는 감탄사(interjection), 부가어(tags)나 비언어적 억양(intonation) 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의사소통 상의 요소들은 구어적 성격을 지니면서 문어적으로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주도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언어 기능에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언어의 형태와 기능(form and function)의 상호관련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어 사용자들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언어 형태(form)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러한 적절한 언어 형태의 선택과 사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언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언어표현과 형태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수에서 문법교육의 목표는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가의문문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사실 확인과 추가 의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소개되었다. 교수-학습 상에서 지도되는 항목들도 문법적인 측면에 치우쳤다. 구체적으로 주절과 부가절의 형태(긍정 혹은 부정)와 억양에 따른 의미관계, 부가절에 쓰이는 동사의 선택 등에 대한 설명이 주

를 이루었다. 반면 실제 부가의문문이 영어사용권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못했다. 부가의문문은 실제 구어체 표현으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상에서 쓰이는 것이지, 상황과 유리되어 문어의 단일 문장 내에서 그 의미와 기능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제2언어 학습 및 습득 환경에서 비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와 기능은 원어민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근래에는 EFL 환경에서 비원어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형태와 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어교육도 고립된 단위로서의 어휘나 문장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가표시어의 상호작용적 전략이 실제로 영어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학습자는 부가의문문의 실제 의사소통 상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상대방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구어체 자료에서 부가표시어는 문법적 기능은 약하지만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화자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데 기여한다. 즉 이들은 실질적으로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화자와 청자 간에 상호 작용하는 담화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담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interpersonal function)하고 담화조직의 매끄러운 연결(textual function)을 위해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을 언어학습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부가의문문(tag-question)의 쓰임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교과서의 중요성

은 매우 크며 교과서에 제시되는 대화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제 대화와 유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가의문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하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에 대한 분석은 비영어권 화자들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 및 인식태도를 보여 줄 것이다. 이는 다시 영어권 화자들이 사용하는 부가의문문 용법과 비교됨으로써 더 나은 교육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존 형태-통사적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를 확대하여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부가 의문문의 다양한 쓰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EFL 환경에서 영어권 화자의 부가의문문 사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부가의문문을 사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실제적 부가의문문의 쓰임을 실제 학습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탐색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장 별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기존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언어적 측면에서 그것들이 어떤 구조·의미적 특징을 지니는지 고찰해 본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크게 부가의문문의 형식적 접근과 의미적 접근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부가의문문 사용의 본질은 구어적 환경에서 담화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담화 기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의 실제적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학생, 교사, 영어권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부가의문문의 사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비영어권 환경에서 부가의문문의 언어 기능적 이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의 영어교육환경에서 부가의문문 지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부가의문문의 상호작용을 위한 문법 기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부가의문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언어학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부가의문문의 언어학적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언어 교육에 있어 문법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부가의문문의 특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소통능력

1.1 언어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 형태 대한 다양한 의미 해석은 의사소통 능력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의 관심이 되었다. Canale & Swain(1980)의 연구는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책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언어능력이란 언어적 부호의 파악, 어휘 및 단어, 조어의 규칙, 문장 구성, 문자적 의미, 발음, 철자에 관한 지식 등을 말한다. 사회언어능력은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담화적 능력이란 언어를 전달하는 여러 매체에 따라 의미와 형태를 어떻게 배합하여 사용할지 아는 능력이다. 책략 능력이란 능력 부족이나 언어 수행상의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의사소통 장애를 보상하고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책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의사소통책략에 대해 Canale & Swain(1980)²⁾

2) M. Canale & M.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은 언어수행의 가변성과 불충분한 언어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보상하려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최근 연구에서 Bachman(1990:84-86)은 의사소통적 언어능력(communitive language 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 knowledge of language), 전략능력(strategic competence), 심리생리적 구조(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언어능력을 결정하고 상황에 알맞은 의사소통 구성요소를 결정하여 표현 기능이나 이해 기능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포괄적인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단지 언어학적으로 구성된 문자, 언어의 형태와 어휘 및 구조에 대한 지식을 벗어난다. 이러한 능력은 주어진 맥락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언어 내적·외적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적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 숙달되지 않은 학습자에게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보다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1.2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전통적 영어 교육의 핵심은 문법적 형식과 구조의 지도와 학습에 있었다. 언어의 형태와 구조(form and structure)연습을 강조하는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교실수업은 단순한 문형연습과 반복학습을 통한 정확성(accuracy)이, 교재에서는 구조중심요목(structural syllabus)을 중심으로 문법적 구조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능력이 되는 말하기 및 듣기 등의 언어 사용적 측면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구조적 접근에서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은 상당히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충족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구조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언어 사용적 측면을 강조한 의사소통교수법 (Communicative Approach),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 그리고 총체적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의사소통교수법은 실제 의사소통(real communication)을 포함하는 활동, 의미 있는 과업(meaningful task) 수행을 위한 영어의 사용을 중시하는 활동중심 접근이다.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언어가 학습 과정을 복돋아 준다는 원리를 내세운다. 자연교수법에서는 상당량의 의사소통과 분석(analysis)이 아닌 습득(acquisition)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체적언어교수법에서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언어의 사회성(the social nature of language), 실제적이고 자연스런 언어(authentic and natural language)의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언어의 네 가지 기능(four skills)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언어의 정확성(accuracy)보다 언어사용의 유창성(fluecny)을, 문법성(grammaticality)보다 적합성(appropriateness)을 강조한다. 즉, 언어의 사용법보다는 실질적 사용에, 문형암기보다 상황에 맞는 표현과 사용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교재내용의 구성도 기존의 문법적 구조중심에서 기능적 개념중심 학습요목(functional-notional syllabus) 중심으로 그 초점이 변화되었고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쓰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은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 접근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교사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변천을 거듭해 왔다. 제6차 교육과정시기(1992~1997)에서부터 문법중심 교수요목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여 기능적 개념 중심의 교수요목을 도입했다.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영어과의 주된 내용변화를 중

심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 방안 구축, 학습내용의 적정화, 실용적이고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 학습의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조정 또는 추가하고,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하는 기본 어휘의 수를 소폭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구어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실용적인 영어학습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원어민을 활용해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활용 영어교육을 강조한다. ICT활용교육은 각 교과시간에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교과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활동이다. 원어민의 생생한 음성과 원어민들이 의사소통하는 실제적 상황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활용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 따른 변화와 흐름은 학습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법의 역할과 이해에 대한 변화는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과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구어체(spoken language) 자료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구어체의 활용과 분석은 축약이나 생략, 발화의 속도, 리듬의 표현 등과 같은 음성-음운적인 면, 자유로운 어순, 구나 절 단위의 문장과 같은 구조적인 면,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 언어적인 면, 그리고 담화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담화·화용적인 면 등을 포괄한다. 실제 사용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어체의 특징들을 잘 활용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에서 강조되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핵심은 교수-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맥 속에서 제시된 언어형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방법론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언어의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기 보다는 교실에서 언어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자연스런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 CLT)이 언어교수 학습 현장에 직접 도입됐다. 학습자를 중시하고 학습자의 필요(needs)에 따른 구

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언어교수법의 핵심이다. Berns(1992: 104)는 이 교수법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Language teaching is based on a view of language as communication. That is, language is seen as a social tool that speakers use to make meaning speakers communicate about something to someone for some purpose, either orally or in writing.
2. Diversity is recognized and accepted as part of language development and use in second language learners and users, as it is with first language users.
3. A learner's competence is considered in relative, not in absolute, terms.
4. More than one variety of a language is recognized as a viable model for learning and teaching.
5. Culture is recognized as instrumental in shaping speaker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both their first and subsequent languages.
6. No single methodology or fixed set of techniques is prescribed.
7. Language use is recognized as serving ideational, interpersonal, and textual functions and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earners' competence in each.
8. It is essential that learners be engaged in doing things with language -that is, that they use language for a variety of purposes in all phases of learning.

2. 상호작용 문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사소통능력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달 메시지의 의미는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문법과 관련시켜볼 때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의 형식에 관한 지식과 언어 사용에 관한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 학습자들은 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의미를 전

달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언어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형태들을 보자.

- 1) a. A glass of water.
- b. Give me a glass of water.
- c. Do you have a glass of water?
- d. Could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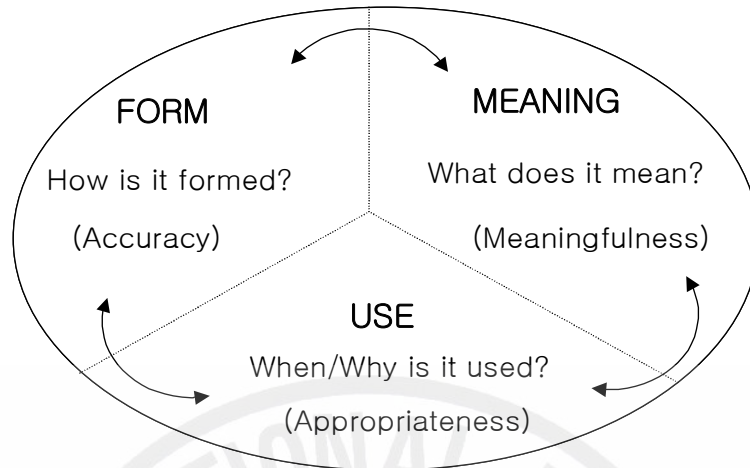
1)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형태들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은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participants)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1a)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며 1b), 1c), 그리고 1d)의 순으로 화자의 공손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이다. 의사소통을 위해 형식과 전달되는 의미의 해석이 관련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인식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상황맥락의 문법 형식의 사용에 영향을 의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문법과정은 상호작용문법(Interactional Grammar)으로 최근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Thompson, et. al, 1997, 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7).

의사소통에 있어 적당한 언어 형태의 선택과 사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Celce-Murcia & Larsen-Freeman(1997: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Grammatical structures not only have a morphosyntactic form, they are also used to express meaning (semantics) in context-appropriate use (pragmatics). We refer to these as the dimensions of form, meaning, and use. Because the three are interrelated - that is, a change in one will involve a change in another.

즉, 문법적 구조는 형태론적 형태 뿐 아니라 적절한 상황적 사용 속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의 형태, 실제 사용 그리고 의미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Celce-Murcia & Larsen-Freeman(1997:4)는 형태,

의미, 그리고 사용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학습된 표현의 실제 사용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에서는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자연스런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학습에서 문법 교육의 핵심은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습된 문법 내용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문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2) a. You played soccer, didn't you?
- b. You are hungry, aren't you?
- c. Open the door, won't you?

위의 2)번 문장에서 2a), 2b), 그리고 2c)의 밑줄 친 부분은 문법적으로 부가의문문이라 불린다. 부가의문문은 앞선 절(주절)에 부가된 형태의 부가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질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가의문문을 이루는 부가절은 술부, 주어 그리고 선택적 부정적 소사(negative particle)로 구성된다. 부가절에서 술어는 앞선 절의 동사에 의존한다. 앞 절에 나타난 be동사와 그리고 조동사(can, may, will, shall)는 부가의문문의 술어로 선택된다. 이들 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는 부가절의 술어로 do 동사를 앞에 나온 주어의 성, 수에 맞는 형태로 사용한다. 2b)와 2c)는 be 동사와 조동사가 부가의문문에 쓰인 예이고 2a)는 do 동사를 취한 부가의문문의 예이다. 부가의문문의 주체는 주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다.

부가의문문의 종류로는 앞선 문장이 평서문인 것과 , 명령문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평서문의 부가절로 형성된 부가의문문은 억양과 극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통적 구조문법은 이 두 가지 형태 모두가 말하고 듣는 이, 즉 담화 참석자들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덕재, 1982, 윤희백, 1990, Park, 1987). 즉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 본인이 어떤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지 표시하는 수단인 것이다. 부가의문문이 실제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언어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언어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박덕재(1982: 161)는 “부정문과 긍정문의 대조로 성(gender), 수(number)에 따라 주어, 조동사가 도치되어 부가절로 나타내어지는 현상” 이라고 했고, Park(1987: 543)은 “그 통사적 모양뿐만 아니라 그것의 쓰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진술과 yes-no 의문문의 중간형태”(a midway between an outright statement and a yes-no question in its usage as well as its syntactic shape)라고 했다. 윤희백(1990: 247)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의, 희망, 공포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의문문의 한 종류” 라고 했고, 김두식(1982: 79)은 “단일문으로서의 서술문의 끝머리에 부가되는 줄인 꼴의 의문문으로서 표면상 그 2개의 문장은 상반되는 극을 갖고서 의미전달을 하는 것” 이라고 했다. 종합해 보면, 부가의문문의 언어적 기능과 관련된 언어학적 연구는 크게 통사적, 음운적, 그리고 의미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3.1 통사적 접근

Cattel(1973: 614-16)은 *Mary is pretty, isn't she?* 라는 문장에서 *Mary is pretty*를 주절이라고 부르고 *isn't she*를 부가절이라 부르고 있다. 통사적 접근이라 함은 주절과 부가절 사이의 어순, 특히 부가절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련된 연구이다. 부가의문문의 통사적 접근은 주절과 부가절 사이에 부가접사의 선택에도 관련된다. 주절과 부가절이 부가접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극(polarity)을 이룰 때 동일극(matching polarity)라 하고 주절과 부가절이 서로 다른 극을 이룰 때 대립극(contrasting polarity)라고 정의했다.

긍정 대 부정에 관해서는 주절과 부가절 사이에 두 가지 부가의문문 형태가 있다. 대조적 부가의문문(contrasting tag question)은 긍정절은 부정의 부가절로, 부정절은 긍정의 부가절로 끝난다. 일치적 부가의문문(matching tag question)은 긍정절이 긍정의 부가절로, 부정절이 부정의 부가절로 끝나는 것이다.

- 3) a. You've adjusted well to life in Korea, haven't you?
- b. You didn't wear your seat belt, did you?
- c. The book is obscene, is it?
- d. The book isn't obscene, isn't it?

3a)는 have 동사가 조동사로 사용되었으며, 주절이 긍정이고 부가절이 부정이며, 3b)는 일반동사가 쓰였다. 3b)는 주절이 부정이고 부가절이 긍정인 대조적 부가의문문이 있는 문장으로서 화자가 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후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치적 부가의문문인 3c)는 be동사가 사용되었으며 주절과 부가절이 모두 긍정인, 3d)는 be동사가 사용되었고 주절과 부가절이 모두 부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은 화자의 의견이 대조적 부가의문문에 비해 확신의 정도가 약할 경우에 사용된다.

박덕재(1982: 162)는 부가의문문이 주어, 수, 성, 인칭의 일치 및 긍정 대 부정에 민감하며 주어,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음 예로써 보여준다.

- 4) a. *They are in town, aren't she?³⁾
 b. *It has a bell, isn't it?
 c. *She was near the stream, was it?

즉, 4a)는 주어자리의 대명사 they 와 부가절의 she가 불일치하여 비문이다. 4b)는 주절의 동사 has와 부가절의 동사 is의 불일치로, 4c)는 긍정-부정이 어울리지 않고 주절의 주어 she와 부가절의 주어 it이 불일치하여 비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부가의문문이 반드시 분명한 극성을 표시하고 대명사의 인칭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a. He was the best in the class, was he?
 b. Be careful, will you?
 6) a. I don't like peas, do you?
 b. I like peas, don't you?

위의 5)는 주절과 부가절이 모두 긍정의 형태인 부가의문문들이고 6)은 주절의 대명사 I와 부가절의 대명사 you가 불일치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분명한 쓰임이 있다. 부가의문문에서 주절과 부가절 간에 통사적 설명이 어려운 것은 부가의문문이 실제 상황맥락과 밀접한 상호작용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사적 불일치에 의한 부가적인 설명은 억양 및 강세와 관련하여 음운적 접근에서 다루기로 한다.

절이 두개 이상 포함된 다소 복잡한 문장구조를 살펴보자. 부가의문문의 통사 규칙은 상위절에 적용되는 것이고 삽입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박덕재, 1982: 165).

- 7) a. John believes (that)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doesn't he?

3) *는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임을 뜻한다.

b.*John believes (that)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isn't it?

7a)는 부가절의 동사에 상위절인 believes를 대신하는 일반동사 does가 쓰여 옳은 문장이지만 7b)는 부가절의 동사는 삽입절의 is가 그대로 쓰여 비문이 된다.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진 복문인 8c)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 8) a. Mary said (that) John believes (that)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didn't she?
b. *Mary said (that) John believes (that)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doesn't he?
c. *Mary said (that) John believes (that)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isn't it?

8a)는 상위절에 상응하는 부가절이 쓰여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8b)와 8c)는 각각 첫 번째 삽입절과 두 번째 삽입절에 상응하는 부가절이 쓰여 비문법적이다. 부가의문문 형성에서 통사적 제약은 상위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expect, guess 등일 경우나, 상위절의 주어가 1인칭 단수이거나 상위절의 시체가 현재형일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

- 9) a.*I suppose that John is honest, don't I?
b. I suppose that John is honest, isn't he?
c. I supposed that John was honest, didn't I?
d.*I supposed that John was honest, wasn't he?
e. We suppose that John is honest, don't we?
f.*We suppose that John is honest, isn't he?

9a)는 상위절의 동사가 suppose 이면서 주어가 1인칭 단수인 문장에 통사적 제약이 적용되고 있다. 9d)는 상위절의 동사의 시체가 현재형이 아닌데 통사적 제약을 지키지 않아서, 9f)는 상위절의 주어가 1인칭 단수가 아닌데 통사적 제약을

어겨서 비문이 된다. 부가의문문은 I think류의 상위절 하의 첫 번째 삽입절과 관련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10)에서 알 수 있다.

- 10) a.* I suppose that John thinks that Mary is honest, don't I?
- b. I suppose that John thinks that Mary is honest, doesn't he?
- c.* I suppose that John thinks that Mary is honest, isn't she?

10a)는 부가절이 첫 번째 삽입절(that John thinks~)과 무관하게 상위절(I suppose~)과 관련하여 만들어졌고 10c)는 부가절이 세 번째 삽입절(that Mary is~)과 관련하여 만들어져서 비문이 된다.

3.2 음운적 접근

통사적으로 안정된 부가의문문은 음운적 요소가 결합되어 언어적으로 복잡화 되어 간다. 부가의문문에 대한 음운적 접근은 부가절에 사용되는 억양의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 Quirk & Greenbaum(1973: 194)은 부가의문문의 억양과 리듬적 형태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11) a. 긍정 + 부정 (상승억양)
 You're coming, aren't you?
- b. 부정 + 긍정 (상승억양)
 You aren't coming, are you?
- c. 긍정 + 부정 (하강억양)
 You're coming, aren't you?
- d. 부정 + 긍정 (하강억양)
 You aren't coming. are you?
- e. 긍정 + 긍정 (상승억양)
 So he likes his job, does he?

f. 부정 + 부정 (상승억양)

So he doesn't like his job, doesn't/he?

11a)와 11b) 같은 상승억양의 부가의문문에서 불확실한 일에 대해 청자의 대답을 구하는 가벼운 의문을 나타낸다. 11c)와 11d) 같은 하강억양의 부가의문문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된다. 진술문이나 부가절이 모두 긍정이거나 모두 부정인 11e)와 11f)는 언제나 상승억양으로서 상대방이 이미 했던 말을 회상하거나 추정해서 말을 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동의 요청의 부가의문문은 하강 억양으로, 정보 요구의 부가의문문은 상승 억양으로 나타난다. 화자가 상승-하강 억양을 사용하면 전체가 강한 것이지만 상승 억양을 사용하면 전체가 약하고 보통 yes 혹은 no의 대답을 요구한다. 즉, 상승-하강 억양은 청자의 본래 문장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반면 상승 억양을 갖는 것은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영어의 상승 패턴은 12)와 같이 행동에 동기부여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 즉 일종의 반응이 요구되어질 때 사용된다.

12) a. You're coming, aren't/you?

b. Do listen, will/you?

c. Let's have a beer, shall/we?

하강억양은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진술문이 하강억양으로 끝이 나고 부가의문문은 마치 메아리 같아서 그 패턴을 강화해 준다. 대부분의 영어 부가의문문은 이 하강 패턴을 갖는다.

13) a.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does/he?

b. This is really boring, isn't/it?

상승억양의 음운적 형태는 분명한 극성을 표시하는 부가의문문 이외에도 긍정-

긍정 패턴의 부가의문문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아래와 같이 모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14) a. He was the best in the class, was/he?
b. He was the best in the class, wasn't/he?
c. Be careful, will/you?
d. Take care, won't/you?

14a)는 상승억양일 때 화자가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14b)는 하강억양일 때 화자가 그 의견을 지지한다. 14c)는 상승 억양일 때 짜증을 표시하며 14d)는 하강억양일 때 걱정을 표시한다. 아래와 같이 똑같은 표현이 상황이나 함축의미에 따라 다른 패턴을 갖기도 한다.

- 15) a. You don't remember my name, do/you?
b. You don't remember my name, do/you?
c. Your name's Mary, isn't/it?
d. Your name's Mary, isn't/it?

즉, 15a)는 상승억양과 함께 놀람을, 15b)는 하강억양 패턴과 함께 재미나 체념을 나타낸다. 15c)는 상승억양과 함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반면, 15d)는 하강억양 패턴과 함께 자신감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부가의문문은 억양과 강세에 따라 화자의 의도가 달리 전달된다. 억양의 변화라는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부가의문문은 그 속성이 문법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부가의문문의 의미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3.3 의미적 접근

임상순(1984: 77-78)은 부가의문문의 의미를 “주절과 동일한 명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있어서 주절의 형태와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

- 16) a. That's a Rembrandt, isn't it?
- b. Catapillars have legs, do they?
- c. Come here, will you?

구체적으로 16a)와 같이 주절과 반대의 극(polarity)을 갖는 부가의문문의 의미 또는 기능은 “확인”을 얻어 내는 것이고 16b)와 같이 동일 극을 갖는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말하려 한다기 보다는 청자와 화자가 알고 있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16c)와 같이 명령문에 붙여지는 부가의문문도 화자가 청자에게 수락이나 거절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명령을 부드러운 권유나 요청 등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다음의 예문과 같이 화자가 명령문을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시키느냐 즉, 화자의 의도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조동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 17) a. Stand, will you?
- b. Stop by the office tomorrow, would you?
- c. Give me a hand with this thing, could you?
- d. Pick out a new desk set for me some time, could you?
- e. Promise never to do that again, won't you?

하지만 위의 부가의문문의 의미는 모두 담화 문맥 속에서 그 설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인다(임상순, 1984).

김두식(1982: 79-90)은 부가의문문을 yes-no 의문문과 비교 설명을 통하여 의미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yes-no 의문문을 정보를 구하기 위해(non-conductive),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의를 얻기 위해(positively conducive), 부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용법으로(negatively conducive) 나누어 그것들이 요청(request)과 감탄(exclamation)의 뜻으로 사용됨을 먼저 보인 후 부가의문문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검토한다.

- 18) a. They will win, won't they?
 b. I don't think that they will win, will they?
 c. I'm sure that's right, isn't it?
 d. Don't tell me that Max has gone again, has he?

위 18a)에서 화자는 청자도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의견에, 18b)에서는 “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를 바란다. 18c)에서 화자는 청자는 “그게 맞다”는 의견에, 18d)에서는 “Max가 떠나지 않았다”고 화자에게 말해주길 바라는 동의 요청의 의미로서 화자가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동의나 호응을 얻으려는 의도를 내포하는데, 이는 yes-no 질문의 동의 요청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 19) a. I'm not sure that's right, is it?
 b. I don't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is it?
 c. I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Harry stayed sober, did he?
 d. The book is obscene, is it? (as sarcastic meaning)
 e. Claude is rich, is he? (as an echo)

19a), 19b) 그리고 19c)는 주절에 불확신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가 있으며 부가절은 불확신의 주절과 극을 같이 하고 있다. 19d)의 냉소적 의미나 19e)의 반항적 의미 모두 그 명제의 진실에 대한 화자 자신의 불확실성을 함축한다. 이렇게 어떤 명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불확실한 주장을 한 후 의심을 한다면 분명 yes-no 의문문이 부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negative conduciveness) 용법과 같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일 때 부가절은 동일극으로 쓰인다.

- 20) a. The door is open, is it?
 b. The door isn't open, isn't it?
 c. Go home, won't you?

위 20a)과 20b) 문장이 화자의 태도가 놀람, 회의, 아이러니, 비난 중 어느 의미 인지는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고 담화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20c) 문장은 청자가 집에 갈 시간인데도 가지 않고 있는 담화문맥 속에서 상승억양곡 선으로 전달될 때는 “정말 집에 가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의 뜻이 되지만 청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담화문맥 속에서 하강억양곡선으로 전달될 때는 “집에 가라”는 반의어적 의문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발화의 앞·뒤 상황맥락이라는 담화를 고려할 때 비로서 부가의문문의 가치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요청(request)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음의 21)도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언어학적 관계가 파악될 때 적당한 의미해석이 유추된다.

- 21) Come here, will you ?

하지만 부가의문문은 yes-no의문문이 가지고 있는 yes나 no 등의 정보요청으로서의 의미(non-conduciveness)는 없고 그 대신 22)와 같이 본 명제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능(hedging or weakening)을 내포하기도 한다.

- 22) You will, won't you, go there now?

4.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기능

기존의 부가의문문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규범적(prescriptive)인 성격이 강하다. 즉 주어진 담화·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와는 고립된 문장

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순한 구조적 분석에 바탕을 둔 부가의문문에 대한 해석은 문장의 쓰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의미적 접근에서 보았듯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전제는 그 언어형식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도(intention)와 직접 관련된다. 화자(speaker)와 청자(listener)간에 공유되어진 정보에 따라 사용되는 음운적 형태가 달라진다. 부가의문문이 단순히 고정된 구조적 문법체계가 아닌 실제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를 들면, 주어-동사 일치현상은 단순한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부가의문문은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통사적 구조를 바탕으로 알맞은 의미전달을 하기 위해 화자·청자 간의 음운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은 부가의문문의 성격을 부연하고 남음이 있다. 궁극적으로 부가의문문은 맥락적 해석이 요구되는 구어체에서 상호작용을 위해 의도되고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가의문문은 단순한 언어학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로서, 문법적 규칙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속에서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부가의문문이 담화 상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되어야 할 문법적 요소라는 점은 단순히 대립극, 즉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의 통사적 배타적 관계로 나타나지 않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23) a. It was then that you met your wife, right?
 b. You remember him, right?

23)에서 부가절로 사용된 표현은 상황 맥락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언어 표시어이다. 즉, 부가절이 대립극이 아닌 right라는 표현이 의사소통 상에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ninger & Garvey(1980: 154)는 부가의문문의 형태를 축약된 의문형의 절(Is he?) 과 의문표현(right?, okay?)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들은 전자를 문법적으로 생략된 부가 구조(elliptical tag construction)라고 하고 전자를 후자와 같이 문법에 의해서라기보다 관습이나 인습에 의한 일상적 반응에서 나온 대안적 형태들(okay, right, or huh)을 고정적 부가 구조(stereotypical tag

construction)라고 부르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담화 기능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Berninger & Garvey, 1980, 156-157).

- 24) a. Information : I don't feel like playing, do you?↗
- b. Agreement : Yes, we do need it, don't we?↘
- c. Permission : I'll hold your teddy bear, O.K?
- d. Compliance : Call the police, O.K?
- e. Verbal response : You like raising↗ huh?
- f. Attention : Oh, uh um before something was hooking on, see?

위에서 정보 요청(information request)과 동의 요청(agreement request)은 생략적 부가 구조(elliptical tag construction)에 의해서 표현되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마지막 억양의 방향에 의해 표시된다.

- 25) Oh, there's nothing to do , is there?

문장 25)를 끝을 올려 읽으면 청자가 화자의 주장에 관한 그의 견해를 제공하길 요청하는 것이고, 끝을 내려서 읽으면 청자로 하여금 그 주장에 동의하고 말로 그 동의를 확실히 해 주길 요구한다.

억양에 따라 부가의문문이 정보요청이나 동의요청 등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은 음운론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그 의미들 외에 24c), 24d), 24e), 그리고 24f)와 같이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하는 부가절의 형태 또한 대립극이 아닌 okay?, huh?, 그리고 see? 등과 같이 의사소통 상에서 자연스러운 표현들이다. 어린이들은 문법적으로 복잡한 생략적 부가구조(elliptical tag construction)를 만들기 전에 다소 덜 복잡한 고정적 부가구조(stereotypical tag construction)로서 위의 여섯 가지 담화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즉 언어발달상 생략적 부가구조(elliptical tag constructions)가 고정적 부가구조(stereotypical tag question) 보다 늦게 습득된다는 것이다. 부가의문문이 단순한 고정된 구조적 문법체계가 아니며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Holmes(1993: 96-98)는 뉴질랜드 중산층의 교육받은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에서의 공손전략을 연구했다. 특히 화용적 소사(pragmatic particles) 측면에서 부가절의 쓰임을 비교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긍정적 공손함을 촉진시키는 용법으로 사용함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부가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표1> 부가의문문의 기능

기능	상황	예
Epistemic modal (expressing uncertainty)	one friend to another recounting her school experiences	I did my exams in sixty three was it
Negative politeness (softening)	mother to child who has emptied her shopping out all over the floor	that was a bit of a daft thing to do wasn't it
Positive politeness (facilitative)	host to dinner guest	Ray had some bad luck didn't you Ray
Face attack marker (challenging)	Superintendent to Detective Constable during interview criticising the Constable's performance	A : ...you'll probably find yourself um be- fore the Chief Consta- ble, okay? B : Yes, Sir, yes, understood A : Now you er full u- nderstand that, don't you? B : Yes, Sir, indeed, yeah

Ⅲ. 영어교과서 부가의문문 사용실태 분석

2장에서 통사적, 음운적, 의미적 그리고 담화적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논의를 통해 부가의문문은 통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어 음운적, 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가의문문의 주요한 특징은 주어진 상황 맥락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입되는 언어장치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과서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권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고등학교 1, 2, 3학년 교과서 9권을 분석 하였다⁴⁾. 앞서 검토한 통사적 형태와 담화적 기준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었고 교재에 등장하는 듣기 대본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 주로 부가의문문의 출현 빈도수를 조사 비교하였다. 그러나 전체 영어교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 등 본격적인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y)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 둔다.

4) (주)천재교육, (주)지학사, (주)현대영어사의 High School English, High School English I,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본 연구에서 (주)천재교육은 A로, (주)지학사는 B로, (주)현대영어사는 C로 표시한다.

2. 교과서 분석내용

세 종류의 교과서에 쓰인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부가의문문이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를 서술문과 명령문(권유형 포함)으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으로 부가의문문의 주된 통사적 기능의 핵심인 동사의 시제와 형태를 중심을 살펴보았다. 통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부가의문문의 유형을 ‘동일극’ ‘대립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가의문문 대답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부가의문문의 담화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교과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부가의문문이 다른 의문문에 비해서 출현빈도가 낮아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이 아닌 듣기대본에 그 출현빈도가 높아 실제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문장의 형태

<표2> 주절의 형태별 분포

출판사 주절의 형태	A	B	C
	서술문	24	33
명령문, 권유문	3	1	0

주절은 유형별로 서술문과 명령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빈도수에 있어서 서술문은 명령문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서술문은 무표적(unmarked)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빈도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 서술문의 형태 중에는 대부분 단문의 형태였는데 3개 출판사를

통틀어 등위접속사로 이루어진 중문의 형태가 4개, 종속절이 있는 복문의 형태가 4개, there 구문이 2개로 조사되었다.

- 26) a. We like different sports, but we both like sports, right?
(A, *High School English*)
- b. Go straight along for two blocks, turn right, and go two more blocks, right? (A, *High School English*)
- c. Put the dishes in the water with detergent, clean them, and rinse them in another tub of water, right? (A, *High School English I*)
- d. I should go to bed early, get more exercise, and eat lots of fruits and vegetables, right? (A,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 e. She thinks that housework is for women only, doesn't she?
(A, *High School English*)
- f. You remember what Dad said, don't you?
(B, *High School English I*)
- g. You know where Jean and Janet Fitness Center is, don't you?
(B, *High School English I*)
- h. Mina, I think you're Yunho's classmate, right?
(C,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 i. There are many problems, aren't there?
(C, *High School English I*)
- j. There's no chance of a full moon tonight, is there?
(B, *High School English I*)

진술문이 여러 종류별로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단순히 청해만을 위한 듣기대본에 실린 문장에 편중되어 있다. 학생들이 실제 교실환경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가의문문 표현은 극히 제한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5) 무표적이라 함은 보다 기본적이고, 자주 나타나며 널리 쓰이는 언어형태를 지칭한다.

2.2 동사의 시제 및 기능

<표3> 동사에 따른 분포 (분류기준 : tag)

동사의 종류	계	A				B				C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be 동사	30	1		6		1		11		2		9	
조동사	15		2	2			5	2			1	3	
일반동사	21	1		8				8		2		2	
계		27				34				23			

(단, 명령문, let's 구문 분류방법 : 조동사, 현재로 함.)

동사별로 살펴보면 be 동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제 유형으로는 현재형 시제가 가장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박정희(1995: 35)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시제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구어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감이 요구되는 부가의문문의 속성과 연결된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예문은 27)과 같이 제시한다.

27) a. You were surfing the Internet again, weren't you?

(A, *High School English*)

b. And your parents are well, aren't they? (A, *High School English*)

c. You've got a new picture, haven't you? (A, *High School English*)

d. Get your cell phone out now, will you?

(B, *High School English I*)

e. We had a lot of fun today, didn't we?

(A,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f. You exercise regularly, don't you? (A, *High School English*)

27a)는 be동사 과거형, 27b)는 be동사 현재형, 27c)는 조동사 현재완료형, 27d)는 조동사 현재형, 27e)는 일반동사 과거형, 그리고 27f)는 일반동사 현재형이 쓰인 부가의문문의 예이다.

2.3 부가의문문의 유형

<표4> 구조적 부가의문문

	A			B			C		
	동일극	대립극	기타	동일극	대립극	기타	동일극	대립극	기타
긍정부가절	2			1	1		3		
부정부가절		18			25		16		
담화적 부가사			7			7			4

분석결과 동일극은 극소수로 명령문과 let's 구문의 경우에만 긍정부가절로 나타났다. 극의 구분 없는 담화 상 부가표시어가 쓰인 문장은 기타로 분류했는데 그 수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형식은 긍정의 전체에 부정 부가절이 첨가된 문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양한 부가의문문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a. Let's go swimming, shall we?

(A,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b. You don't like rock music, do you?

(C,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c. My mistress is being heartless, isn't she? (A, *High School English*)

d. She must be Yumi's girl friend, right?

(A,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28a)는 동일극이면서 긍정의 부가절, 28b)는 대립극이면서 긍정의 부가절, 28c)는 대립극이면서 부정의 부가절, 그리고 28d)는 담화적 부가사가 쓰인 예문이다.

2.4 대답의 양상

yes-no 질문은 학습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간단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다. Wh-질문 또한 주어진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질문은 기계적 유의미적 연습(meaningful drill)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순 활동에 포함된다. 반면,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말하고, 듣는 이의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전제라 함은 주어진 의사소통 정보에 대해 참여자들은 선형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가사는 실질적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쉽게 끌 수 있는 언어적 장치이다. 앞서 보았듯이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기능 즉, 초대, 허락 요청, 주의 끌기 등은 부가절의 담화적 성격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부가의문문에 대한 응답양상을 보면, 편지글이나 실용문에서 혼잣말처럼 쓰여서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My favorite subject is biology - amazing, isn't it?, You often eat hamburgers, don't you?) 대부분의 경우 응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29) a. Q : You know Han jinju, don't you?

A : I only know him by name. Why do you ask?

(B, *High School English I*)

b. Q : She's full energy, isn't she?

A : That's just what I was thinking

(B, *High School English*)

c. Q : You do like our cookies, don't you?

A : Yes. To me, your cookies are the best in town.

(B, *High School English*)

d. Q : She's amazing, isn't she?

A :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set a new record

(B, *High School English*)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yes-no 혹은 wh-질문과는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9b)의 상호작용에서 듣는 이의 대답을 통해 말하는 이와 일정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듣는 이는 다시 부가의문문의 사용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써(29a)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응답 양상을 통해 부가의문문은 대화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과정에서 이어지는 대화의 양은 yes-no질문에서 나타나는 단순 대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가의문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 영어 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 교과서 분석내용 평가

본 장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부가의문문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선 빈번히 사용되는 동사의 유형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가의문문의 유형 및 대답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가의문문의 쓰임에 대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절의 경우 무표적 형태인 서술문이 명령문이나 권유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현장감이 요구되는 구어적 특성에 기인하여 현재시제가 타 시제에 비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셋째, 대립극 형태의 부가의문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넷째, 제시된 발화에 대한 응답은 yes-no 질문에 대한 것에 비해 길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째, 주로 사실 여부를 묻는 의문기능과 동의요구, 공손한 부탁의 기능만이 소개된다.

여섯째, 구체적 대화방식이 아닌 듣기활동에서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소개되고 있다.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부가의문문의 의미는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대화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활동에서 듣고 이해만 하는 수준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접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영어부가의문문의 인식 분석

1. 설문 절차 및 방법

이전의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은 부가의문문의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교사 및 학습자들이 부가의문문에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면 부가의문문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의문문의 기능적 측면(사용 및 활용)에서 질문을 제시하고 그것의 상호작용적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어교사 22명과 필자가 근무하는 서귀포 시내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학생 70명,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의문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통사론적, 음운론적, 의미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담화적 견지에서도 그 특징을 알고 있는지, 학교교육에서 부가의문문이 과연 실제 의사소통에서 활용되는 담화적 측면에서 교수-학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 등을 설문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교사 대상 설문지는 9문항, 학생 대상 설문지는 6문항,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는 6문항으로 구성했다. 학생 설문은 수업시간의 10분을 할애해서 실시하였고, 교사 대상 설문은 설문지를 각 학교에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은 필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원어민 교사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설문결과는 필자가 수거해 직접 통계를 얻었다.

2 설문 분석내용

각 대상별로 제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영어교사 대상 문항>

1.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잘 모른다.
- ②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③ 부가의문문에서 인도네이션의 변화와 의미관계를 잘 알고 있다.
- ④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⑤ 기타()

2. 학생들에게 일반 의문문(wh-질문, yes-no 질문)과 부가의문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다음 두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 상황을 간략히 기술해 주세요.

A. Are you hungry? B. You are hungry, aren't you? (A:) (B:)
--

4. 영어교과시간에 학생들에게 부가의문문을 가르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고 가르치십니까? (가능하면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억양 ② 형식 ③ 의미 ④ 기타()

5. 다음 중 부가의문문이 있는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치세요.

- ① Open the window, won't you? ()
- ② I'm coming with you, alright? ()
- ③ Easier said than done, eh? ()
- ④ He reads a lot of books, doesn't he? ()
- ⑤ You are hungry, aren't you? ()
- ⑥ You aren't going, O.K.? ()

6. 평소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문장은 yes-no 질문의 사용에 비해,

- ① 매우 공손하다 ② 공손하다 ③ 보통이다
- ④ 공손하지 않다 ⑤ 매우 공손하지 않다

8.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 a. Open the door.
- b. Open the door, won't you?

(차이점: _____)

9. 다음 부가의문문에 적당한 대답을 해 보세요.

- ①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_____)
- ②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_____)
- ③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_____)
- 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듣는 이(listener)가 말하는 이(speaker)와 의견이 다를 때)
(_____)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문항>

1.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situations that the following might be used/spoken?

(around the lunch hour)

Are you hungry? vs. You are hungry, aren't you?

2.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llowing sentences?

(A situation: it is windy outside)

Open the door vs. Open the door, won't you?

3. What might be the proper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t a natural conversation?

①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②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③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

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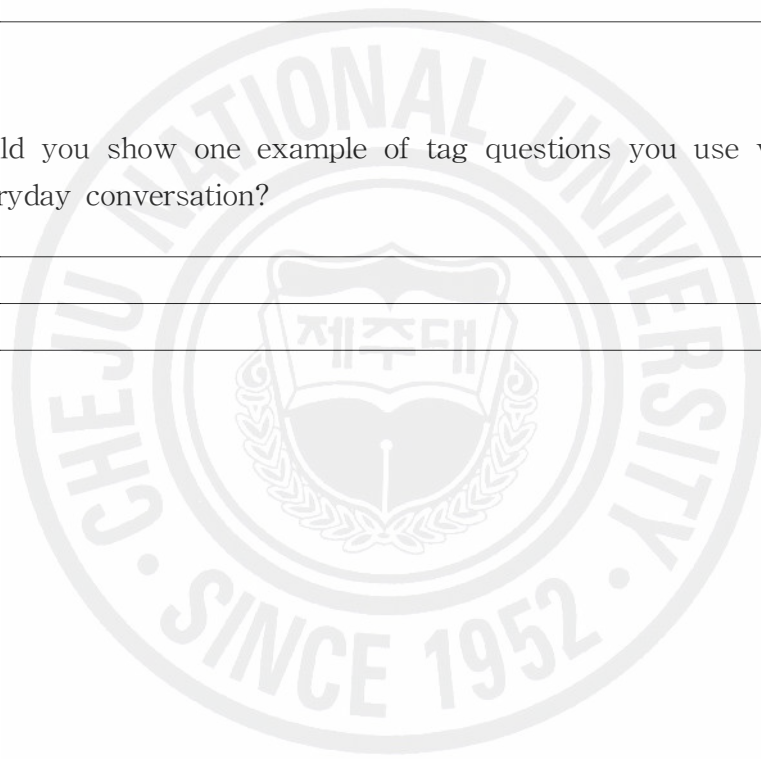
(When listeners disagreed with the speaker)

()

4. How often do you use tag questions?

5. In what situations do you use tag questions? Could illustrate a few situations in which tag questions are introduced and tell us some reasons for each?

6. Could you show one example of tag questions you use very often at everyday conversation?



2.1 교사 대상 설문지 분석

<표5>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1 분석

<부가의문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	① 잘 모른다.	②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③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의미관계를 알고 있다.	④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을 알고 있다.	⑤ 기타
응답자	1	8	10	9	
비율(%)	3.6	28.6	35.7	32.1	

교사를 대상으로 부가의문문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부가의문문에 대해 35.7%의 응답자가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의미관계를, 32.1%가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을, 28.6%가 부가의문문의 형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부가의문문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6>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학생들에게 일반의문문과 부가의문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준 적 있습니까?>

보기 응답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	2	15	4	1	
비율(%)	9.1	68.2	18.2	4.5	

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교사 22명 중 17명이 학생들에게 일반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의 차이를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답했고 4명은 중립적인 반응, 1명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어떤 차이를 가르쳐 주었는가 하는 질문이 더 주어져야 하겠지만, 단순히 <표6>에 나타난 자료는 의문문 간의 형식적 혹은 의미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7>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영어교과시간에 학생들에게 부가의문문을 가르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어 가르치십니까?>

보기	① 억양	② 형식	③ 의미	④ 기타
응답				
응답자	12	13	13	
비율(%)	31.6	34.2	34.2	

위 표를 보면 교사들은 부가의문문에 대한 학습 내용에서 억양은 31.6%가, 형식 그리고 의미는 34.2%가 가르친다고 답했다. 이 세 요인은 부가의문문의 이해에 있어서 서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5분석

<다음 중 부가의문문이 있는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 응답	① Open the window, will you?	② I'm coming with you, alright?	③ Easier said than done, eh?	④ He reads a lot of books, doesn't he?	⑤ You are hungry, aren't you?	⑥ You aren't going, OK?
응답자	20	8	11	22	22	7
비율(%)	22.2	8.9	12.2	24.4	24.4	7.8

<표8>을 보면 형식적 구조, 즉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의 대립극에 대해서는 부가의문문으로 쉽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 부가사가 첨부된 표현은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사의 형태로 쓰이는 right, okay 등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의 성격을 지니면서 실제 의미적 측면에서 의사소통 전략적 구조로 사용된다. 위 분석 결과는 실제 문법적 지식의 일환으로 부가의문문을 단순 형식적 구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예다. 실제 구어적 환경에서 담화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의 기본적 가치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9>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6분석

<평소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보기 응답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3	10	7	1	1
비율(%)		13.6	45.5	31.8	4.5	4.5

평소 의사소통 시 부가의문문을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45.5%가 중립적인, 40.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가의문문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의와 관심 등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부가의문문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높음(<표9>)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을 기본전제로 하는 부가의문문의 쓰임과 활용에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10>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7분석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문장은 yes-no 질문의 사용에 비해,>

보기 응답	① 매우 공손하다	②공손하다	③보통이다	④ 공손 하지 않다	⑤ 매우 공손하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1	11	7	2		1
비율(%)	4.5	50	31.8	9.1		4.5

50% 이상이 부가의문문이 공손하다고 인식했지만 45.6%가 부가의문문의 공손용법을 적절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yes-no 질문과 부가의문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은 부가의문문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언어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11>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교사집단의 응답

문항3) 다음 두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 상황을 간략히 기술해 주세요.

a) Are you hungry?

b) You are hungry, aren't you?

- 문장a)는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고 문장b)는 상대방의 대답을 추측한 상태에서 단지 확인할 때 하는 질문이다.
- 문장a) 단순히 배고프냐고 물어보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고 문장b)는 긍정적인 답(동의)을 요구하며 뭐 좀 먹자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다.
- 문장a)는 yes나 no의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 문장b)는 부가질의 억양에 따라 쓰이는 상황이 다르며 상승억양일 때 단순 질문으로 쓰이고, 하강억양일 때 동의를 구할 때 쓰인다.

문항8)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간략히 써 보세요.

a) Open the door

b) Open the door, won't you?

- 문장a)는 문을 열라는 명령이고 문장b)는 공손한 요청(부드러운 부탁)이다.
- 문장a)는 명령자체이고 문장b)는 동의 구하기이다.
- 문장a)는 딱딱한 어조이고 문장b)는 부드러운 어조이다.
- 문장a)는 직설적이고 문장b)는 완곡하거나 또는 강요적이다.
- 문장b)가 덜 형식적이고 듣는 이가 문을 열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부가의문문의 기능 및 쓰임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가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es-no 질문보다 공손한 어감을 느낄 수 있고 명령문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가의문문의 기능임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12>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양상 (교사대상)

<p>문항9) 다음 부가의문문에 적당한 대답을 해 보세요.</p>
<p>① John wanted to play, <u>didn't h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he did · Yes, he wanted to play · Yes, you're right · Of course he did · I think so · Sure we played with him · I know
<p>② John wanted to play, <u>didn't h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don't know · No, he didn't · Yes, he did / No, he didn't 둘 다 가능 (확인차원이므로) · I'm not sure · Well, I have no idea

<p>③ John didn't want to play, <u>did h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ybe · Yes, he did · No, he did · Yes, he did / No he didn't 둘 다 가능 · I'm not sure · Yes, he didn't. If so, somebody asked him to play together
<p>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erry? (When listeners disagreed with the speak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they can · So confused. How about your idea? · I don't think so. They can! · No, they can't · Calm down! They can get that big, I think

<표12>은 교사들이 여러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문장①과 문장②의 억양에 따른 기능을 인식하고 답을 하고 있다. 하강 억양으로 끝나는 부가의문문인 ①에는 동의를 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 맞게 대부분 동조의 응답을 하고 있고 상승억양으로 끝나는 문장②에는 사실 확인 여부를 질문하는 기능에 맞게 모른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을 하고 있다. 둘째, 전제가 긍정이고 부가절이 부정인 문장②와 전제가 부정이고 부가절이 긍정인 문장③은 그 응답 양상에 차이가 없다. 셋째, 문장④에는 주로 Yes, they can과 No, they can't라는 답변을 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 볼 원어민의 응답(<표21>)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2 학생 대상 설문지 분석

<표13>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1분석

<부가의문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영어 수업을 통해 배웠다.>

보기 응답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	10	35	23	2	0
비율(%)	14.3	50	32.8	2.9	0

학생들은 64.3%의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이란 무엇인지 수업시간에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32.8%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가의문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한 지식체계로서의 부가의문문은 습득보다 상호작용을 기본전제로 하는 사용과 활용적 측면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

<표14>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부가의문문에 대해 배웠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해당 사항에 모두 동그라미 쳐 보세요.>

보기 응답	① 부가의문문의 역양의 변화	② 부가의문문의 형태	③ 부가의문문의 의미관계	④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	⑤ 기타
응답자	23	54	17	37	1
비율(%)	17.4	40.9	12.9	28	0.8

학생들은 대부분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부가의문문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영역이 형태, 역양,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표7>) 선생님들이 부가의문문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학생들의 대답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15>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3분석

<다음 중 부가의문문이 있는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 응답	① Open the window, will you?	② I'm coming with you, alright?	③ Easier said than done, eh?	④ He reads a lot of books, doesn't he?	⑤ You are hungry, aren't you?	⑥ You aren't going, OK?
응답자	53	9	6	66	66	9
비율(%)	25.4	4.3	2.9	31.6	31.6	4.3

여러 가지 문장 (부가사가 있는 문장도 포함)을 제시하고 부가의문문을 고르라는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통사적 대립극 형태인 것을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명령문 뒤에 오는 will you?를 부가의문문의 형태로 인식했다. 하지만 alright, eh, okay 등 부가사의 형태들은 소수의 학생만이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단순한 형태적 기능 전달과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가의문문의 상호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선생님이나 학습자 모두가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해 준다 하겠다. <표14>에서 부가의문문의 학습 영역 중에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이28%를 차지했지만 <표15>의 ②번 항목(허락 요구), ③번 항목(동의 요구) ⑥번 항목(요청) 등을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수업 현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만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문장은 yes-no질문의 사용에 비해,>

보기 응답	① 매우 공손하다	②공손하다	③보통이다	④ 공손 하지 않다	⑤ 매우 공손하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1	11	7	2		1
비율(%)	4.5	50	31.8	9.1		4.5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54.5%의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이 단순 yes-no 질문에 비해 공손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혹은 ‘공손하지 않다’ 라는 대답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음은 부가의문문의 쓰임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17>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학생집단의 응답

<p>문항5)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간략히 써 보세요.</p> <p>a) Open the door</p> <p>b) Open the door, won't y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a)는 명령조이고 문장b)는 부탁의 어조이다. · 문장b)가 더 공손하다.

- 문장a)는 명령문이고 문장b)는 부가의문문이다.
- 비의문문과 의문문의 차이이다.
- 문장b)는 상대방의 대답을 유도한다.
- 문장b)가 더 부드럽다.
- 문장a)는 명령이고 문장b)는 의사를 묻는 표현이다.

위 질문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제시된 문항으로 두 집단 모두 부가의문문이 yes-no 질문보다 공손한 표현이고, 명령문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전달해 준다는 기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8>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양상 (학생대상)

문항6) 다음 부가의문문에 적당한 대답을 해 보세요.
① <u>John wanted to play,</u> didn't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Yes, he did · *No, he did · Yes, he want to play · Yes, he does · Yes, he wanted to play
② <u>John wanted to play,</u> didn't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 Yes he d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he didn't · No, he doesn't · Yes, he wanted to play
<p>③ <u>John didn't want to play,</u> <u>did h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he did · No, he didn't · *Yes, he didn't · *Yes, he does · No, he didn't wanted to play
<p>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When listeners disagreed with the speak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 · No · No, they can't · *No, they can · I don't agree with you · I think they can

대부분의 학생은 응답 란에 답을 하지 않았다. 부가의문문의 형태나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응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부가의문문 응답에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억양과 함께 나타나는 기본적 언어개념을 하나의 문법 체계로만 이해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면 no라는 대답을 해 놓고 부가설명으로 긍정문을 쓰는 등 문법적 오류도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선생님의 응답에

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들이 짧고 다양하지 못하다.

2.3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분석

<표19>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1분석

<p>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situations that the following might be used/spoken? (during the lunch hour)</p> <p>a) Are you hungry?</p> <p>b) You are hungry, aren't you?</p>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en the speaker is hungry· When the speaker searches for one of two answers· When the answer is not known· If the speaker wanted to know if the listener was hungry· Straight forward question· When proposing to go to lunch together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en the listener looks hungry - or it is meal time· When the speaker is hungry and he/she wants the listener to be hungry too· Someone looks hungry, so the speaker asks· When you ask for confirmation· When the speaker is hungry or is eating, cooking to eat· If the answer is known

- If the speaker was surprised or questioning why the listener wasn't hungry or eating very much
- When the speaker is expected the listener to be hungry or if the person is eating a lot (doesn't expect answer)
- When the speaker can clearly see someone is hungry
- When the speaker has an opinion based on previous knowledge or observation that the person is probably hungry

<표19>는 yes-no 질문과 부가의문문의 사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장a)가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할 때,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하기 전 청자가 배고픈지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고 진술했다. 즉, 직접적인 질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장b)는 청자가 배고파 보이거나 식사시간일 때, 배가 고픈 화자가 청자 또한 배가 고프길 바랄 때, 화자의 추측에 대한 확인을 구할 때, 화자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청자가 너무 많이 먹을 때, 답을 알고 있을 때 사용된다고 응했다. 문장 a)에 비해 상황이 전제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결과(<표11>)와 비교했을 때 부가의문문인 문장b)의 훨씬 다양한 쓰임을 실제 언어 사용자인 원어민 보조교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표20>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2분석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llowing sentences? (When it is windy outside)

- a) Open the door
- b) Open the door, won't you?

a) Open the door

- Sort of command to someone
- imperative, a monologue
- telling the person to open the door (order)

b) Open the door, won't you?

- Request
- Other person is closer or has easier access to door
- If the listener is already up, can you open the door?
- Being polite
- promotes dialogue
- Asking if the person wants to open the door
- Often used if the listener is already doing something else near the door

위의 응답을 종합하면 단순 명령문인 문장a)는 명령문이고, 명령 부가의문문인 문장b)는 청자가 문 가까이 있을 때 쓰인다거나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거나 할 때 쓰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두 문장이 차이가 없이 똑같다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의사소통 상에서 문장b)는 사용이 되지 않으며 동일극인 Open the door, would you?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 보다는 Would you open the door please?가 공손한 요청으로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의견을 달아 준 응답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상호작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3분석

<What might be the proper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t a natural conversation?>

①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Yeah, but he hurt his arm
- Oh ok, tell him we are going to start
- Yes he did / No he didn't
- I think so
- Yes, he wanted to play (but couldn't)
- He did but he had to work.
Actually he doesn't like soccer
- Yes, I think (he did)
- I don't know, you would have to ask John

②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Yes/ No
- Maybe yes, he wanted to play
- Yes, he did
- Not sure maybe
- Yes, he told me he did
- Yes, I thought so
- same answer with 'a' (He did but he had to work. /
Actually he doesn't like soccer)
- same answer with 'a' (Yes, he did / No, he didn't/ I think so)
- I am not sure
- No, he never wanted to play
- same answer with 'a' (Yeah, but he hurt his arm /
Oh ok, tell him we are going to start)

③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 No / Yes
- Yes, he wanted to play
- No, he didn't
- No, I don't think so
- No, he didn't (shake head)
- No, he didn't. He doesn't know how to play basketball
- Yes, he did. He just didn't know when the game started
- No, he doesn't like soccer
- I think he did actually

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When listeners disagreed with the speaker)

- Yes, they can
- No, they can't
- I don't know Mary. Maybe they can!
- Yes, in some cases
- Surely they can
- Usually they don't but there have been some cases when they did grow to that size
- Yes, they can but not often
- I don't think so
- Actually I think they can get even bigger
- Um, I don't know much about that

원어민의 응답을 보면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yes / no로 끝나는 응답이 드물고 그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그에 맞게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의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가의문문이 구어체에서 대화자들 간에 일정한 정보가 공유되고 상황이 전제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22>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4분석

<p>How often do you use tag ques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y if I am asking for assistance or looking for a particular answer very often · Being Canadian, Eastern Ganadian, I do but it is usually limited to ____, eh? · Not often · Very often · Hardly ever, do I? · It's hard to be sure but I think I regularly use them · Sometimes, usually in a relaxed comfortable settings with people I know well · Sometimes, I'm not sure · Occasionally · I don't know · Um, I don't know... Probably more than I realize. Mostly used when an answer is assumed or expected ... a way of double checking or politely reminding. Otherwise used as rhetorical questions (maybe sarcastic as well)

원어민 보조교사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가
 질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asking for assistance), 특정한 대답을 기대할 때 (looking for a particular
 answer),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편안한 상황에서(in a relaxed comfortable
 settings with people I know well), 대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when the answer
 is assumed or expected) 사용한다고 답했다. 어떤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이 쓰일
 수 있는지 그 예와 설명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표23>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5분석

<p>In what situations do you use tag questions? Could you illustrate a few situations in which tag questions are introduced and tell us some reasons for each?</p>
<p>▷ Affirmation / Confirmation - You're going tonight, right?</p> <p>▷ Requesting an agreement - It's a nice day, eh? - He did well, didn't he? - He's pretty cute, don't you think?</p> <p>▷ Statement being polite - Grab me a beer, too, will you? - Open the door, will you?</p> <p>▷ When I don't believe someone - You're not 180 cm tall, are you? - You ate the chocolate, didn't you?</p> <p>▷ Curiosity - You like 80's pop, don't you?</p>

- ▷ When I try to influence a decision
 - You like Kalbi, don't you?
- ▷ Asking for direction
 - I go left, right?
- ▷ When not being sure about something
 - We're going to the movie tonight, aren't we?
 - Halla is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isn't it?

이 외에 기타 30)과 31) 같은 의견이 나왔다.

30) Tag question makes the listener conscious of their own opinion in the matter rather than simply, agreeing or accepting a statement

31) I mostly use them about myself, when I'm unsure and want someone else's opinion on something like "I don't smell, do I?" and "This shirt looks stupid, doesn't it?"

<표24>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6분석

Could you show one example of tag questions you use very often at everyday conversation?

- You ate lunch, right?
- You finished your homework, right?
- You're going to hagwon, aren't you?
- It's hot isn't it?
- How's it going, eh?
- That's pretty sweet, eh?

- _____, right?
- It's nice today, isn't it?
- Good idea, right?
- We need milk, don't we? (when I'm heading to the store and checking what to buy)
- You're drunk, aren't you? (joke) / You're not going home, are you?
- It's cold, isn't it?

위 예문들을 보면 확실히 부가의문문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빈번히 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형태를 보면 극성(polarity)없이 right, eh 등이 첨가된 표현이 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부가의문문이 어떤 극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고정된 문법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말하고 듣는 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언어적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32)에 제시된 응답자의 의견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32) I often add 'aye' or 'right' or 'don't you think' to check for the listeners' understanding and agreement

2.4 분석에 따른 토의

교사 대상 설문지의 3번 문항과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설문지의 1번 문항인 동일문항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을 때 문장a)가 쓰이는 상황에 대하여 공통적인 응답은 상대방에게서 나올 대답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yes나 no의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서 단순 명령문인 문장a)보다 부가의문문인 문장b)가 쓰일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나온 것을 감안해보면, 부가의문문이 의사소통 상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사 대상 설문지의 8번 문항, 학생 대상 설문지의 6번 문항, 원어민 보

조교사 대상 설문지의 3번 문항의 응답을 비교해 보자. <표18>의 ①번 문장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전반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응답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응답들을 통해 부가의문문이 갖가지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집단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응답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대답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응답 중 위 문장이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첨가되어 있었다.

- 33) a. “When the speaker is sure John wanted to play”
- b. “Speaker is confused”

전반적으로 첫 번째 질문인 하강억양일 때와 달리 <표18>의 문장②와 같이 상승억양일 때는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yes 와 no의 응답이 골고루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원어민 중에는 억양에 상관없이 <표18>의 문장①과 문장②에 똑같은 응답을 보인 응답자가 많았다. 위 질문이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 34) a. “The speaker is not sure if John wanted to play”

<표18>의 문장③, 즉 두 번째 질문과 억양이 상승억양으로 같지만 전제가 부정이고 부가절이 긍정인 문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세 집단 모두 전제와 부가절의 긍정, 부정에 따라 확연히 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항, 즉 전제가 긍정, 부가절이 부정인 문장에 대한 응답과 거의 흡사했다. 원어민의 응답 중에 첨가된 상황설명은 다음과 같다.

- 35) a. “John probably did not play and the speaker is not completely sure”
- b. “When the speaker forgot to ask”

<표18>의 문장④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학생들은 10명 안팎의 학

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이는 부가의문문을 단순 의문문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응답자들 중 일부는 제시된 조건, 즉 청자가 화자와 의견을 달리할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영어교사들의 응답은 전체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응답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의문문이 단순한 언어적 기능 이외에 담화 기능적 상호작용 기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본 속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영어교사 자신들도 그 응답 범을 잘 모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가의문문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응답 범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종합 평가

영어교사, 학생,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부가의문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영어교사

첫째, 수업시간에 부가의문문의 형식, 억양, 의미를 가르치며 그 세 요소를 서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한다.

둘째, 부가의문문의 대립극 형태는 쉽게 인식하지만 부가사의 형태는 그 인식률이 낮다.

셋째, 부가의문문을 단순히 형식적 구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넷째, 공손용법에 대한 인식률이 낮아 부가의문문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언어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실제 사용률이 낮아 부가의문문에 대한 이해와 사용 사이에 거리가 있다.

여섯째, 응답양상을 원어민의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답변의 길이가 짧고 다양성

이 떨어진다.

3.2 학생

첫째, 부가의문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통해 부가의문문의 형태, 억양, 의미를 학습한다.

즉, 단순 형태적 기능 습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부가의문문의 상호적 기능은 경시되거나 무시된다.

셋째,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서툴다.

3.3 원어민 보조교사

첫째,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둘째, 부가의문문에 응답할 때 그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적절한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응답한다.

셋째, 실생활에서 극성이 없는 부가사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의문문을 극성이 존재하는 단순 문법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 기제로 인식하고 사용한다.

V. 영어 부가의문문의 교수 · 학습 방향

1. 교과서 내용편성

종전에 부가의문문은 교과서에 듣기 활동에서 제시되어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쳤거나 연습문제 활동에서 의사소통 상황과 유리된 고립된 문장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수-학습 내용도 억양에 따른 의미변화나 주절과 부가절이 긍정과 부정의 극성을 띤다는 것, 주절에 따라 부가절의 주어와 동사가 선택이 된다는 다소 기계적인 문법사항이었다. 이런 제시방법으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기 힘들다. 부가의문문이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단일문장의 문법사항이 아닌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부가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정보 요구하기- I don't feel like playing, do you?
- 동의 요구하기- Yes, we do need it, don't we?
- 허가 요구하기- I'll hold your teddy bear, okay?
- 응락 요구하기- Call the police, okay?
- 주의 끌기- Oh, uh um before something was hooking on, see?
- 의사소통 촉진하기- Ray had some bad luck, didn't you Ray?
- 불확실 표현하기- I did my exams in sixty three, was it?
- 부드럽게 하기(softening)- That was a bit of a daft thing to do , wasn't it?
- 의심 표시하기- You're not 180 cm tall, are you?
- 확인하기 - You're going tonight, right?

- 공손하게 발언하기 - Open the door, will you?
- 호기심 표현하기 - You like 80's pop, don't you?
- 방향 묻기 - I go left, right?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에도 이와 같은 부가의문문의 의사소통 상 다양한 기능들이 소개되어야 하며 또 구체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교수-학습 되어야 한다. 그 방식은 이전의 방식으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즉, 미리 제시된 부가의문문 표현의 의미를 따지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부합하는 부가의문문의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2. 부가의문문 지도 방향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연구를 뒤로 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의문문 지도에 대해 간략한 조언을 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영어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 문장을 예로 들기로 한다.

36) You are hungry, aren't you?

이제까지 교사가 36)번의 표현을 수업시간에 가르쳤던 방식은 이미 제시된 예문을 분석하여 형식상 주절이 긍정이니까 부가절이 부정으로 되었고 부가절이 상승억양이면 청자의 상태를 몰라서 질문하는 상황이고 하강억양이면 청자에게서 확인동의를 구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다. 즉, 문맥이나 담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 문장만을 놓고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교육 실태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러운 부가의문문 표현활동과 실제 원어민과의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가의문문을 발화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36)번의 표현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37)과 같은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38)번에 나열된 표현들을 도출해 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37) 배고픈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배고프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같이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38) a. You are hungry, aren't you?

b. You are hungry, eh?

c. You are hungry, right?

위와 같이 36)번을 가르칠 때 37)와 같은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38)의 표현을 도출하는 식의 방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가의문문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39)와 같은 적극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볼 수 있다.

39) a. Yeah, sort of. Let's go and grab something.

b. Yeah, I was trying to say that

c. Well, I'm not that hungry but I'm with you if you want me to

위와 같은 교수방법을 진행했을 때 그 기대효과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하고 미묘한 어감까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영어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고 현 영어교육계의 흐름에 좀 더 부합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VI. 결 론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영어교육에서 중점사업이며 근래에 많은 분야에서 의사소통증진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대화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주는 상호작용 기재(interactional cues)로 작용하는 감탄사(interjection), 부가어(tags), 비언어적 억양(intonation)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의사소통 상에서 적절한 언어 형태의 선택과 사용은 대화 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언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 적절한 언어형태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문법을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모아져야 한다.

부가의문문은 영어교육현장에서 통사론적, 음운론적, 의미적 측면에서의 다소 기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되는 부가의문문은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되는 것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원어민이 실제 영어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이 구사하는 부가의문문을 질문으로 인식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의 다양한 쓰임과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되는 면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체 자료에서 부가절은 문법적 기능은 약하지만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사이에서 말하는 이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부가의문문을 통사론적, 음운론적,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실제 담화 상에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3개 출판사의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해 부가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부가의문문의 형태 및 의미는 주로 사실여부를 묻는 의문의 기능과 동의요구의 기능, 공손한 부탁만이 소개되었다. 그것은 상황이 전제된 구체적인 대화방식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

기활동에서 듣고 이해만 하는 수준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가의 문문을 접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교과서 분석과 아울러 교육현장에 있는 영어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을 통해 부가의문문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설문내용의 핵심은 부가의문문이 실제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위상, 그것에 대한 응답양상들이다.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가 부가의문문으로 인식하는 문장의 형태는 주로 be 동사와 일반동사가 있는 축약된 의문문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명령문 뒤에 동일극 부가의문문과 담화적 부가사가 있는 문장은 인식이 낮았다. 또한 부가의문문이 타 의문문에 비해 공손하지 여부를 물었을 때 학생, 교사 모두 그것을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의문문의 공손용법도 잘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평소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인 영어교사는 부가의문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원어민의 경우는 끝에 담화적 부가사를 붙이는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원어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제시하고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여 한국인 영어교사가 부가의문문의 의미와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확실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교실 현장에서 부가의문문을 가르치는 방식은 부가의문문을 제시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즉 이해활동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부가의문문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부가의문문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부가의문문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후 실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난 의사소통단절의 구체적인 사례를 더 연구한다면 부가의문문이 교수-학습되어야 할 측면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부가의문문에 대한 형식적이고 비 맥락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의사소통상황에서 가르치려는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1997-15호.
- 김경화(2004), “구어체 Corpus의 구문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두식(1982), “부가의문문의 분석”,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21 No.2, 79-90.
- 김해연(2003) “담화분석과 대화분석에서의 계량분석방법의 문제”, 「인문학연구」, 155-179.
- 박덕재(1982), “부가의문문에 관한 분석 연구”, *Journal of Kwangwon University* Vol.11, 161-167.
- 박선애(2005) “중학교 영어교과서 듣기, 말하기 부분의 의사소통책략 분석과 효과적인 교수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희(1995), “영어 부가의문문의 의미론적 고찰 : 현장학습의 심화과정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기완(1999), “Reactions of Korean Speakers of English to Yes/No Questions”, 「산업연구」, Vol.1 No.2, 515-545.
- 안행순(1991),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엄철주(2006),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의사소통책략의 분석”,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22, No.1, 2006.
- 윤희백(1990), “영어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응답에 관한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Vol.6, 247-264.
- 이경미(200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교과서 의사소통기능 분석 : ‘듣기 - 말하기’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춘희(2005), “(The) Discourse marker say in English: a Corpus-based study”,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상순(1984), “영어 부가의문문의 의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vol. 69-80.

- 최성심(2003), “음성분석을 통한 초등학생의 영어 억양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광휘(1982), “부가의문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Bachman, L.(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inger, G. & C. Garvey(1980), “Tag constructions: structure and function
in child discourse” , *Child Lang* 9, 151-16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Berns, M.(1992), *Contexts of Competence: Socio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New York: Plenum.
- Canale, M. & M.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
Applied Linguistics 1, 1-47.
- Cattell, R.(1973),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 , *Language*,
49, 612-639.
- Celce-Mucia, M. & D. Lasen-Freeman(1997), *The Grammar Book: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Publishers.
- Culicover, P. W.(1992), “English tag questions in Universal Grammar”,
Lingua 88, 193-226, North-Holland.
- Holmes, J.(1993), “New Zealand women are good to talk to: An analysis
of politeness strategies in interaction”,*Journal of Pragmatics*
20, 91-116.
- Park, M. S.(1987), “A Remark on the Use of the English Tag Question”,
Silla University Journal 22, 543-549.
- Thompson, S.A, E. Schegloff & Ochs, E.(1997), *Interaction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ag Question in English and User's Attitude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Kang, Hyunju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yong*

Language is for communication and the aim of language education is to improve the communicative ability of the learners. Communicative ability means being able to use the language on the basis of the background knowledge of the formal structure of the language and the extra-linguistic items. It involves not only the grammatical knowledge but also context of situation and strategic competence.

The English education under the circumstance of emphasizing the language usage and pattern practice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t created a sensation that we should regard its real use and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function of communication tools as important. Currently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s widely used.. The direction of recent language studies flows into providing the recognition of the performance-based language function.

With flourishing studies of language function many researchers examine tag markers as a discourse marker. Tag-markers, widely observed in real communication, have various functions contributing to expressing the speakers' attitudes. In specific, right or okay, used as tag markers at the end of sentences can be recognized as conversational strategies in speech although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prepositional meaning.

There have been somewhat mechanical teaching-learning activities in terms of syntactic, phonological and semantic tag-questions in public education of English without mentioning the various use of them in real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way they understand the tag questions through analyzing the textbooks and questionnaire expecting to help students to use grammar correctly in acquiring the language.

We can't stress too much the importance of the English textbook in EFL situation in which English is not used in daily routine. The example conversation offered in the textbook needs to be authentic.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meanings of tag questions in textbooks are limited to those of information request, confirmation request and being politeness. The way they are offered is not productive but receptive like in script of listening sections limiting the opportunity for learners to encounter them in specific.

Going over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tells us that English teachers recognize tag-questions as context-isolated items. Both the English teachers and the students didn't realize non-contrasting tag markers as parts of tag questions. The English teachers said they don't use tag markers in

speaking English while many foreign English assistant teachers responded they use them quite often in non-contrasting forms with tag-markers at the end of sentences.

Until now tag questions have been taught in a way making the learners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previously presented ones in public education which results in students lacking skills of expressing and responding to them. Now it's time to change the way we teach tag questions that fit into context of colloquial usage which will result in an education identical to the goal of improving th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부록1>

영어 부가의문문에 대한 설문지 (교사용)

본 설문지는 영어교육 현장에 있는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부가의문문에 대한 쓰임 및 이해도, 그리고 활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의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밝혀드리며, 아울러 여러 선생님의 대답 감사드립니다.

1.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잘 모른다.
- ②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③ 부가의문문에서 인토네이션의 변화와 의미관계를 잘 알고 있다.
- ④ 부가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⑤ 기타()

2. 학생들에게 일반 의문문(wh-질문, yes-no 질문)과 부가의문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다음 두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 상황을 간략히 기술해 주세요.

A. Are you hungry?
B. You are hungry, aren't you?

(A:)

(B:)

4. 영어교과시간에 학생들에게 부가의문문을 가르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고 가르치십니까? (가능하면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억양 ② 형식 ③ 의미 ④ 기타()

5. 다음 중 부가의문문이 있는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치세요.

① Open the window, won't you? ()

② I'm coming with you, alright? ()

- ③ Easier said than done, eh? ()
- ④ He reads a lot of books, doesn't he? ()
- ⑤ You are hungry, aren't you? ()
- ⑥ You aren't going, okay.?()

6. 평소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문장은 yes-no 질문의 사용에 비해,

- ① 매우 공손하다 ② 공손하다 ③ 보통이다
 ④ 공손하지 않다 ⑤ 매우 공손하지 않다

8.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a. Open the door.
 b. Open the door, won't you?

(차이점:)

9. 다음 부가의문문에 적당한 대답을 해 보세요.

①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②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③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

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듣는 이(listener)가 말하는 이(speaker)와 의견이 다를 때)

5.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간략하게 써 보세요.

- | |
|---|
| a. Open the door.
b. Open the door, won't you? |
|---|

(차이점:)

6. 다음 부가의문문에 적당한 대답을 해 보세요.

- ①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 ②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
- ③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
- ④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듣는 이(listener)가 말하는 이(speaker)와 의견이 다를 때)

<부록3>

Questionnaires

1.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situations that the following might be used/spoken? (around the lunch hour)

Are you hungry? vs. You are hungry, aren't you?

2. Could you please descri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llowing sentences?
(A situation: it is windy outside)

Open the door vs. Open the door, won't you?

3. What might be the proper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t a natural conversation?

A :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B : (answer)

A : John wanted to play, didn't he?

B : (answer)

A : John didn't want to play, did he?

B:(answer)

A : They can't get that big, can they, Mary?

(When listeners disagreed with the speaker)

B:(answer) _____

4. How often do you use tag questions?

5. In what situations do you use tag questions? Could illustrate a few situations in which tag questions are introduced and tell us some reasons for each?

6. Could you show one example of tag questions you use very often at everyday conversation?

